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68)

知皇帝之貴

지 황 제 지 귀

황제가 귀하다는 것을 알겠구나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열흘 뒤로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 올라가려고 많은 말을 하면서 유권자들, 국민에게 약속한다. 자기를 뽑아 주면 지금까지 내려왔던 고쳐야 할 부분을 고쳐 주겠다고.

사람들은 고쳐 준다는 것을 좋아 한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혁신(革新)’이니 ‘개혁(改革)’이니 하는 말을 앞에 내세우는 사람이 유독 많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적마다 그것이 흑세무민(惑世誑民)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한다. 고쳐 줄 수 없는 것을 고쳐 주겠다고 하는 것과 고칠 마음이 없으면서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과 백성을 현혹하여 속이는 흑세무민이기 때문이다.

역사에는 이러한 흑세무민이 많았다. 내가 어릴 때 경험하였던 것 가운데 잊히지 않는 것이 있는데, 6.25 전란에 3개월 동안 북한 치하에서 살 때였다. 그때 공산당 선전원이 어린이들을 모아 놓고 공산당의 ‘똑같이 잘 사는 세상’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이제 와서 북한의 엄청난 격차와 차별을 보면서 그때 선전원의 그 ‘혁명적인 말’이 어린 나를 얼마나 속이려 했음을 감지하게 된다.

자칫통감 가운데 있는 가장 혁신적인 구호(口號)를 꼽으라면 어떤 것일까? 나는 진(秦) 말기에 진에 최초로 반기(反旗)를 들었던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의 말을 꼽겠다. 그들은 진(秦)의 하급 관료로 강남지역에서 장정(壯丁)을 인솔하여 북쪽의 전방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도중에 비를 만나서 며칠 움직일 수 없는 바람에 도착일이에 맞추어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고생을 하면서 목적지에 가 보아도 벌을 받기는 마찬가지이니 차라리 반기를 드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자기가 인솔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고생을 하면서 목적지에 가도 기한을 어겼으니 벌을 받게 되었다. 차라리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자. 장상(將將)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성공하면 장상이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부추겼다. 이 말에 장정들은 동의하였고 진(秦) 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뒤에 처음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비록 그 후 진승과 오광은 망하기는 했지만, 이 말이 도화선

(導火線)이 되어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평민 출신 유방(劉邦)이 한(漢)왕조를 일으켰다.

역사상 유방이 한(漢)을 건국한 것만큼 혁신적인 사건은 그리 흔하지 않다. 한(漢)이 건국되지 전까지의 사회는 귀족(貴族) 출신이 아니면 제왕(帝王)이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시대였다. 진(秦)도 주(周)의 제후국(諸侯國) 가운데 하나였으니 말할 것도 없이 귀족출신이 지배하는 나라였는데, 평민인 유방이 황제가 되었으니 아주 큰 변화와 혁신의 사건이다.

사실 유방과 끝까지 자웅(雌雄)을 다투었던 항우(項羽)도 초(楚)지역 장군 집안 출신이었는데 유방이 항우를 이기고 황제가 되었으니 분명히 평민도 귀족을 이기고 황제가 될 수 있는 시대임을 증명해 준 것이다. 그러므로 진승과 오광이 엄청난 혁신의 구호(口號)를 외친 사람이라면 유방은 엄청난 혁신을 완성한 사람이라 하겠다.

이렇게 혁신(革新), 혁명(革命)을 완성한 유방은 정말로 장상(將相)의 씨가 따로 없는 시대를 열었을까? 그러나 유방이 한(漢)의 고조(高祖)가 된 뒤로 황제는 당연히 유씨(劉氏)여만 된다고 하였다. 평민으로 황제가 되더니 안면 몰수하고 스스로 귀족이 된 것이다. 그 후 전후한 4백 년 동안 유씨만이 황제가 되었으니 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는 구호 속에서 탄생하였지만 반대로 유씨들 스스로 그 구호를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다.

후한 마지막 황제인 헌제(獻帝)가 조비(曹丕)에게 나라를 헌상(獻上)하자 유비(劉備)는 천하는 유씨의 것인데 조씨(曹氏)가 황제가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촉한(蜀漢)을 세웠다. 유비는 이미 망해 버린 유씨 세상을 끝까지 지켜보고자 한 것이다. 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는 혁신(革新)적 구호가 나오고 4백년이 지난 뒤에도 훌륭하다고 칭송되는 유비조차 여전히 장상의 씨를 강조한 셈이니 역사를 400년 후퇴시키려 한 것이다.

사실 혁신(革新), 개혁(改革)은 말로는 쉬운데, 실천하기는 어렵다. 유방이 처음에 어떤 말로 사람들에게 약속했을까? 유방이 처음 진(秦)의 도읍인 함양(咸陽)에 들어가서 그곳의 부모(父老)들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이려고 진(秦)의 잔혹한 법을

다 없애고 약법(約法) 3장만을 시행했다고 약속했다.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을 다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말로 혁신적 정책의 발표였다.

유방이 항우까지 제거하고 집권해 올랐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귀족 같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저 군대 안에서의 장군과 부하 정도의 관계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으니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투가 끝난 상황에서 논공행상(論功行賞)을 하는 도중에 불만을 품은 장병들이 술을 먹고 칼로 기둥을 치는 무엄한 행동을 보자 변화였다.

유방은 장병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아주 싫어하였고 약법3장을 지키지도 못하고 차츰 자기가 없애버린 진(秦)의 법을 하나씩 돌씩 다시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니 진대(秦代)로의 회귀(回歸)였다. 그러더니 숙손통(叔孫通)을 통하여 진대(秦代)의 의식을 참고하고 적용하여 거창한 의례를 만들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여 유방은 하느님의 아들, 천자(天子)가 되었다. 그것이 얼마나 좋던지 숙손통에게 ‘이제야 황제가 귀하다는 것을 알겠다.’고 고백하였다. 진대로 돌아가면서 좋아한 것이다. 결국 장상의 씨가 없다는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고, 퇴역적인 조치를 하였으니, 앞에서 한 그의 말은 흑세무민이 되었다.

어떤 것을 주장하는 구호(口號)는 유방의 경우처럼 대체로 흑세무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구호가 범람하고, 그 안에는 유권자를 현혹시켜 속이려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팬덤 정치에 매몰되어 특정집단이나 사람을 맹종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의 국회도 여전히 싸움질로 지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언론도 편을 들면서 엄청난 객관적 시각을 가지지 못하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흑세무민의 구호를 구별해 내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가 현명하면 유권자가 승리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구호로 유권자를 현혹시킨 후보자가 당선되면 그들은 곧바로 ‘국회의원이 귀하다는 것을 알겠다.’고 하면서 꺼떡거릴 것이고, 한국정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도돌이표가 될 것이다.

고사성어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刻骨難忘(각골난망)

새길 각, 뼈 골, 어려울 난, 잊을 망

뼈에 새겨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남이 배운 은덕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속 깊이 느끼며 잊지 않음을 표현한 말. 유사한 표현으로 結草報恩(결초보은)이 있음.

이 단어의 유래는 춘추시대 진나라의 위무자가 죽기 전에 아들 위과에게 자신이 사랑하던 후처 즉 아들의 서모를 재가시키라고 했다.

그러나 막상 죽을 때가 되자 정신이 혼미해져 자신과 함께 묻으라고 했다. 아들 위과는 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말했다는 이유로 서모를 친정으로 돌려보내 재가하게 했다. 훗날 위과가 전쟁에서 적장을 잡고 큰 공을 세웠다. 이날 밤 꿈에 서모의 친정아버지가 나타나 은혜를 갚기 위해 풀을 엮어 적장의 말을 넘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결초보은(풀을 묶어 은혜를 갚다)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

刻舟求劍(각주구검)

새길 각, 배 주, 구할 구, 칼 검

움동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

초나라 사람이 배에서 칼을 물속에 떨어뜨리고 그 위치를 뱃전에 표시하였다가 그곳에서 칼을 찾겠다는 어리석음에서 유래하였다.

여씨춘추의 절금편에 나오는 말이다.

感慨無量(감개무량)

느낄 감, 슬퍼할 개, 없을 무, 헤아릴 량(량)

그지없도록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라는 뜻으로 한없이 깊고 큰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다.

甘言利說(감언이설)

달 감 말씀 언, 이로울 이(리), 말씀 설.

남의 비위를 맞추는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만 들어 그릴듯하게 꾸미는 말로 남을 꾀기 위해 하는 듣기 좋은 말이라는 뜻이다.

별주부전에서 가북이가 토끼를 꼬여내기 위해 한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에서 유래되었다고 함.

비슷한 말로 巧言令色(교언영색)이 있음.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비위를 맞추는 말과 알랑거리는 낯빛이라는 뜻>

去者必返(거자필반)

갈 거, 사람 자, 반드시 필, 돌아갈 반

풀이 : 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마련임

출전 : 불교 경전인 유교경(遺教經)에 나오는 말로 세상은 모두 덧없는 것이니 만나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 세계무상世皆無常 회필유리會必有離다 하였고, 열반경(涅槃經)에는 흥성함이 있으면 반드시 쇠퇴함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 부성필유쇠夫盛必有衰 합회유별리合會有別離 라는 구절이 나온다.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헤어지면 반드시 만나는 말로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 인간관계에서의 무상함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법화경法華經에 나옴)

안동권씨 추밀공파 문충공종중 정기총회 개최



안동권씨 문충공종중(회장 권오협)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9일(목) 11시 충주시 탄금한우타운에서 서울과 상주 등에서 70여 명의 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혁중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권오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서울과 상주 등에서 참석해 주신 종원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문충공 종회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총회는 회순에 의거 개회선언, 성원보고, 국민의례, 회장 인사, 결산보고, 감사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영창 대총회 회장은 화환을 보내 문충공 종중 정기총회를 축하했다. 권오협 문충공종중 회장

여주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권오옥 여주종친회 회장 직무대행

여주종친회 정기총회가 2024년 3월 6일 11시에 여주축협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권혁복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권오옥 회장 직무대행은 권혁산 전 회장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별세하여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는 것과 종친회 발전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정기총회는 권혁산 전 회장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되었으며 여주종친회의 임원과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보고와 결산 승인 절차를 거쳤고, 사업계획 토의에서는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편 여주종친회 권영현 고문은 자랑스런 선조의 업적 및 권문과 인연이 있는 인물의 자료를 정리하여 족친들에게 배부하였다. 권오옥 회장 직무대행은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노인회 분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권오상 사무총장

〈2024年 3月 宗報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 2.28. ~ 3. 24.
총 납부자 323명
지사 9곳

(이름순)																								단위:원
♣권오순(대구)	30,000	권대춘(대구)	30,000	권병호(서천)	30,000	권순채(경주)	30,000	권영범(예산)	30,000	권오광(강릉)	30,000	권오창(안동 옥동)	30,000	권재국(산청)	30,000	권중호(강릉)	30,000	권한걸(서울구로)	30,000	권현규(경기고양)	30,000			
♣권오협(지역?)	30,000	권대보(경기용인)	30,000	권삼식(창원)	30,000	권순재(서울송파)	30,000	권영복(서울성북)	30,000	권오근(안동 이개리)	30,000	권오철(강릉 심곡리)	30,000	권재근(대구)	30,000	권진택(경주 동천동)	30,000	권혁곤(고령)	30,000	권원욱(봉화)	30,000			
♣권원철(대구)	30,000	권덕근(경기용인)	30,000	권상경(나주)	20,000	권순철(강릉)	30,000	권영복(안동 김안면)	30,000	권오근(양산)	30,000	권오철(서울동대문로메이)	30,000	권재호(합천)	30,000	권진현(함양)	30,000	권혁구(서울서초)	30,000	권영근(서울금천)	30,000			
권건춘(서울강남)	30,000	권덕산(안동)	30,000	권상철(대구)	30,000	권순채(대구)	30,000	권영부(경기김포)	30,000	권오규(세종)	30,000	권오철(영주)	30,000	권재택(안동)	30,000	권찬기(경주)	30,000	권혁기(강릉 난곡동)	30,000	권호(완주)	30,000			
권경석(대전)	30,000	권덕용(안동)	30,000	권상태(남양주)	30,000	권순택(강릉)	30,000	권영상(논산)	30,000	권오기(서울영등포)	30,000	권오정(서울은평)	30,000	권재열(안동)	30,000	권창중(제천)	30,000	권혁관(강릉 교동)	30,000	권호관(고령)	30,000			
권경일(대구)	30,000	권덕용(서울양천)	30,000	권상호(봉화)	30,000	권순태(안동 김천리)	30,000	권영수(서울강서)	30,000	권오길(경주 서부동)	30,000	권오추(안동)	30,000	권재열(정읍)	30,000	권천영(서울용산)	30,000	권혁룡(강릉)	30,000	권호달(제천)	30,000			
권구민(서울송파)	30,000	권도현(안동)	30,000	권석순(안동)	30,000	권순현(서울강남)	30,000	권영수(안동 용상동)	30,000	권오대(청송)	30,000	권오준(포항)	30,000	권재호(경기여주)	30,000	권창일(대구)	30,000	권혁만(강릉 교동)	30,000	권호성(영동)	30,000			
권규석(제천)	30,000	권도현(경북 합성동)	30,000	권석원(안동)	30,000	권순경(대전)	30,000	권영수(세천 화산동)	30,000	권오경(강릉 관음리)	30,000	권오준(의성)	30,000	권재홍(가창)	30,000	권충근(창원)	30,000	권혁모(경기여주)	30,000	권호열(안동)	30,000			
권규택(서울종구)	30,000	권돈원(대전)	30,000	권석조(대구)	30,000	권송욱(경기용인)	30,000	권영식(밀양)	30,000	권오택(서울양천)	30,000	권오하(강릉)	30,000	권재홍(완주)	30,000	권충욱(서울마포)	30,000	권혁무(강릉)	30,000	권호철(대전)	30,000			
권극상(구미)	30,000	권돈혁(강릉)	30,000	권석주(광주)	30,000	권매석(부산)	30,000	권영식(산청)	30,000	권오민(강릉)	30,000	권오향(안동)	30,000	권재호(합원)	30,000	권충욱(합안)	30,000	권혁무(대구 남구)	30,000	권홍근(합천)	30,000			
권기동(강릉)	30,000	권동균(안동)	30,000	권석환(안동 동부동)	30,000	권영각(경기이천)	30,000	권영식(서울서대문)	30,000	권오범(서울노원)	30,000	권오현(대구 동구)	30,000	권정선(고령)	30,000	권철용(경기수원)	30,000	권혁무(대구 수성구)	30,000	권충태(서울종로)	60,000			
권기룡(경주)	30,000	권동욱(광양)	30,000	권선광(창양)	30,000	권영관(창원)	30,000	권영진(경기양평)	30,000	권오범(예산)	30,000	권오현(목포)	30,000	권정수(서울서초)	30,000	권태경(안동 송현동)	30,000	권혁문(강릉)	30,000	권희송(서울성동)	30,000			
권기룡(안동 경동로)	30,000	권동일(안동)	30,000	권성기(금산)	30,000	권영구(부산)	30,000	권영오(안동)	30,000	권오복(강릉 교동)	30,000	권오협(제천)	30,000	권정수(창원)	30,000	권태영(안동)	30,000	권혁민(강릉)	30,000	우에다도시코(고양)	30,000			
권기백(경주)	30,000	권동민(정읍)	30,000	권성우(제천)	30,000	권영구(안동 김천리)	30,000	권영관(서울성북)	30,000	권오복(대구)	30,000	권오협(강릉 송정동)	30,000	권정영(전주)	30,000	권태문(진천)	30,000	권혁민(서울광진)	30,000					
권기영(서울양천)	30,000	권동현(경주)	30,000	권성택(청주)	30,000	권영구(제천)	30,000	권영우(음성)	30,000	권오봉(서울강동)	30,000	권욱산(대구)	30,000	권정용(산청)	30,000	권태복(서울금천)	30,000	권혁신(경기김포)	30,000	권사현(김해) 5부	150,000			
권기철(안동 송현동)	30,000	권두일(영주)	30,000	권성희(예천)	30,000	권영희(충주)	30,000	권영하(강릉)	30,000	권오열(강릉)	30,000	권왕희(충천)	30,000	권정홍(전주)	30,000	권태식(부여)	30,000	권혁철(영성)	30,000	칠봉공계 10부	200,000			
권기재(부산)	30,000	권두현(경기수원)	30,000	권성환(안동)	30,000	권영근(강릉)	30,000	권영민(합천)	30,000	권오석(창원)	30,000	권용기(서울강남)	30,000	권정호(산청 강누리)	30,000	권태열(안동)	30,000	권혁우(강릉)	30,000	화성위종중 23부	460,000			
권기준(안동)	30,000	권두호(구미)	30,000	권세원(영주)	30,000	권영근(영월 수곡리)	30,000	권영일(단양)	30,000	권오섭(진천)	30,000	권용덕(서산)	30,000	권정홍(산청)	30,000	권태용(울산)	30,000	권혁웅(영주)	30,000	여주종친회 11부	220,000			
권기행(대구)	30,000	권민택(경주)	30,000	권세종(안동)	30,000	권영길(상주)	30,000	권영준(청주)	30,000	권오진(경기성남)	30,000	권용운(익산)	30,000	권정훈(인천)	30,000	권태원(강릉)	30,000	권혁정(강릉)	30,000	청조공파 2부	60,000			
권기호(경기파주)	30,000	권명안(의정부)	30,000	권수보(경주)	30,000	권영달(부산)	30,000	권영창(경기의왕)	30,000	권오연(부산)	30,000	권용태(포항)	30,000	권중선(경기용인)	30,000	권태윤(경기오산)	30,000	권혁조(안동 문평길)	30,000	논산종친회 20부	300,000			
권기호(안동 광연리)	30,000	권영철(안동)	30,000	권수창(서울광진)	30,000	권영태(제천)	30,000	권영철(안동 독전로)	30,000	권오연(안동 노하동)	30,000	권우범(서울강남)	30,000	권중수(남양주)	30,000	권태은(구미)	30,000	권혁조(충주 용천리)	30,000	매현공종중 23부	460,000			
권기호(안동 마들근길)	30,000	권우현(안동)	30,000	권순갑(경기용인)	30,000	권영동(대구)	30,000	권영철(영동)	30,000	권오열(강릉)	30,000	권욱경(원주)	30,000	권준진(안동)	30,000	권태이(강릉)	30,000	권혁주(칠곡)	30,000	부초장공파 15부	300,000			
권기호(안동 이개리)	30,000	권문섭(구미)	30,000	권순국(영주)	30,000	권영동(영주)	30,000	권영하(강릉)	30,000	권오열(진천)	30,000	권욱형(원주)	30,000	권준환(원주)	30,000	권태진(서울강동)	30,000	권혁준(경기이천)	30,000	충주종친회(추가)	100,000			
권기홍(영주)	30,000	권민성(안동 노리)	30,000	권순길(서울송파)	30,000	권영두(경주)	30,000	권영하(대구 동구)	30,000	권오열(창원)	30,000	권유일(영덕)	30,000	권주철(서울종로)	30,000	권태준(청송)	30,000	권혁중(강릉)	30,000					
권기훈(대구)	30,000	권민집(대구)	30,000	권순상(강릉)	30,000	권영태(아산)	30,000	권영복(안동 대화동)	30,000	권오열(예천)	30,000	권윤기(대구)	30,000	권주호(서울노원)	30,000	권태현(대구)	30,000	권혁진(강릉)	30,000					
권기훈(서울광진)	30,000	권박(안동)	30,000	권순식(인천)	30,000	권영록(경기김포)	30,000	권영환(대구 동구)	30,000	권오윤(강릉)	30,000	권인호(대구)	30,000	권주호(서울노원)	30,000	권태현(안동 독전면)	30,000	권혁찬(서울노원)	30,000					
권길용(안동)	30,000	권병관(부산)	30,000	권순연(안동)	30,000	권영관(서울원천리)	30,000	권영철(																
권나은(천안)	30,000	권병국(천안)	30,000	권순욱(문경)	30,000	권영록(안동 문경면)	30,000	권영훈(서울송파)	30,000	권오정(포항)	30,000	권인혁(경주 황성동)	30,000	권중근(안동 안막동)	30,000	권택빈(경기수원)	30,000	권혁찬(서울노원)	30,000					
권남식(서울광안)	30,000	권병도(대구)	30,000	권순욱(서울강서)	30,000	권영록(서울용평)	30,000	권오강(예천)	30,000	권오주(안동 이개리)	30,000	권정삼(강릉)	30,000	권준철(포항)	30,000	권택중(안동)	30,000	권혁찬(안동 정성동)	30,000					
권남철(인천)	30,000	권병선(서울동대문)	30,000	권순일(나주)	20,000	권영문(안동 유안동)	30,000	권오근(진천)	30,000	권오진(서울강북삼각진로)	30,000	권장희(서울송파)	30,000	권중석(경산)	30,000	권혁철(상주)	30,000	권혁찬(강릉)	30,000					
권대적(안동)	30,000	권병택(음성)	30,000	권순자(안동 불우골)	30,000	권영민(창원)	30,000	권오근(안동 광명로)	30,000	권오찬(청송)	30,000	권재택(경기화성)	30,000	권중철(경주)	30,000	권혁환(창원)	30,000							
																			총 11,950,000원					